낙후농촌의 지속적 수익¹⁾창출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칠갑산권역 천장리(알프스마을)을 사례로-

김두환

고베대학

Development Process of Activities about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for Making Continuous Profit in Underdeveloped Rural Village

- The Case of Cheonjang-ri(Alps village), Mount Chilgab-Region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Kim, Du-Han

Kobe University

ABSTRACT : The study area is Cheonjang-ri, also called Alps village, making continuous profit after performing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activities about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for making continuous profit by residents themselves. A focus on thinking about the process is necessary to make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continuous profits in the underdeveloped rural village by residents themselves. As a result of this study, Alps village has developed new activities, improving problems which are encounter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ctivities. And, Alps village has developed new activities by linking them with previous activities. To improve problems, Alps village has made an effort by itself and cooperated with the subject,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village. This way has been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in village.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in village has been effective in making a continuous profit. Also, continuing to make new activities in order to substitute previous activities including problems has been effective to increase profit.

Key words : Development Process of Activities, Urban and Rural Interchange, Making Continuous Profi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lps Villag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농촌개발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에서부터 그것을 도입한 농촌개발 관련 정책 사업(=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접근하여 낙후지역의 농촌(=낙후농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설정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개발정책에서 패러다임의 변화²⁾가 있었고, 이것이 반영된 농촌개발사업(=개발사업)에서도 추진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은 ‘농촌지역 특성을 활용한 개발’(=추진방향①), ‘주민참여 중시 및 주민중심의 상향식 개발’(=추진방향②), ‘시설개발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소프트사업(주민역량강화, 지역혁신체계구축 등)의 도입’(=추진방향③)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중점을 둔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2004년부터 시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Du-Han

Tel : 010-9003-3416

E-mail : bayabaya3@hotmail.com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³⁾. 추진방향①에서는, 주민참여에 따른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하여서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주민 단합·갈등 문제). 추진방향②에서는, 마을의 특성을 활용한 농촌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하여서 수익창출 등 마을 활성화가 실현 가능한 활동(=사업 내용)개발이 미흡했다(=개발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활동개발 문제). 추진방향③에서는, 소프트사업으로 리더양성과 주민교육을 시행하여 주민역량강화를 도모하였지만,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인재양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주민역량강화의 실효성 문제).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⁴⁾, 농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낙후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해답을 제시한 실천적인⁵⁾ 연구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말한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 중 추진방향②에 대한 문제, 즉 개발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활동(=사업 내용, 세부 프로그램)개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연구대상 지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후 도농교류활동을 통하여 수익 창출에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된 칠갑산권역의 천장리(=알프스마을⁶⁾)이다.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농교류활동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스스로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민이 마을 공간 및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여 마을 발전 과제를 설정한 후, 도농교류를 위한 활동(이하 ‘활동’은 ‘도농교류 활동⁷⁾’을 말함)을 어떻게 개발·발전시켜서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바꾸어 말하면,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했다 (Table 1).

(1)관련 문헌조사⁸⁾를 통하여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습득한 후, 천장리의 마을 공간과 사회 특징을 파악했다. (2)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마을발전 과제 설정 과정을 파악했다. (3)활동개발 전후 변화한 부분(활동 운용상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 실태)에 주목하여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을 파악했다. (4)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의 특징

Table 1 연구의 흐름과 방법

구분	조사·분석 항목
(1)	○마을 기본현황 ·천장리의 마을 공간 및 사회 특징 파악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과정 파악 ·마을발전 과제 설정 파악
(3)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및 특징 ·활동개발 전·후 변화한 부분 주목 파악 ·활동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 실태
(4)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의 특징이 수익창출에 유효했는지를 검증 ①연도별 총매출 창출 실태 파악하여 매출 창출구조 분석 ②활동개발 전개과정 특징과 도농교류 방문자확보, 수익창출의 유효성 분석 ③도농교류활동에 따른 주민 농외수익 창출 실태 파악

□현장조사 - 조사·분석항목 관련 자료·데이터 수집

①제1차 현장조사(예비조사): 2012.11.24~28

②제2차 현장조사(본 조사) : 2013.02.06~25

·인터뷰조사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 활동참여 주민

·자료 수집 분석

·알프스마을 운영실태 및 수익 관련 데이터(총매출, 수익, 도농교류 방문자수)

이 수익창출에 유효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익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먼저, ①연도별 총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매출창출 구조를 파악했다. 다음, ②활동개발 전개과정 특징과 도농교류 방문자확보, 수익창출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③도농교류활동에 따른 주민 농외수익 창출 실태 파악하여,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의 특징이 농외수익 창출에 유효하였는지를 검증했다.

관련 자료,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알프스마을을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⁹⁾(=예비 조사: 2012.11.24~28)와 2차 현장조사(=본 조사 : 2013.2.6.~25)를 시행했다. 1차 현장조사 기간은 알프스마을 얼음축제 준비 기간에, 2차 현장조사 기간은 얼음축제 시행 기간에 포함된다. 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기간 중 얼음축제 준비와 시행 일부분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 위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참여 관찰했다. 또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¹⁰⁾ 운영위원장(이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하였고, 알프스마을 운영실태 및 수익 관련 데이터(=총매출, 총이익, 주민수익)를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관련 자료(=희망마을 만들기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 보고서(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에서 획득했다.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 착안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박시현과 박주영,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환영 등,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양원식과 최수명, 2013)’이 있다. 박시현과 박주영의 연구와 정환영 등의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여러 권역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화하여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조진상의 연구는 위의 두 연구와는 달리 하나의 사례 지역을 선정해 주민 수익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수익사업의 성과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양원식과 최수명의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부문이 사업자체의 단순한 경영·경제적 수익성보다는 권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본질적 추진의미가 있음에 유의하여 소득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소득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진모형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수익창출을 지속하여 최종적으로는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양원식과 최수명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하나의 사례지역을 심층 조사하여 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 실태를 밝히고 있는 점은 조진상의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조진상의 연구는 표면적인 경제효과 규명에 그치고 있다. 양원식과 최수명의 연구는 56개 권역에 대하여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로 일반화한 이론적 추진모형은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사업에 대한 여러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추진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의 두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도(목적)는 표면적인 경제효과를 밝히는 것, 이론적인 추진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참여 관찰을 통한 필드 워크(현지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에 도달한 이유를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에 착안하여 분석하여, 수익 창출에 유효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방법과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에 기존의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본 연구의 특징)이 있다.

4. 조사대상 지역 선정 및 개요

천장리는 주변의 네 마을과 함께 ‘칠갑산권역¹¹⁾’을 형성하여 2004년 4월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것은 2009년 12월 말에 완료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에서 칠갑산권역은 2004년도 착수 35개 권역 중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었다. 칠갑산권역의 다섯 마을 중 특히 천장리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공간을 활용하여 얼음축제와 조롱박축제를 개발해서, 도농교류활동을 시행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마을과 지역의 수익창출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이 평가전문가로부터 높게 평가되었다¹²⁾.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알프스마을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알프스마을은 궁극적으로 정부행정기관과 지역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마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알프스마을은 이를 위하여 수익을 계속하여 창출하는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알프스마을은 수익창출을 지속하여 최종적으로는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다른 농촌지역에서도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알프스마을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II. 천장리의 개요 및 마을 공간의 특징

1. 천장리의 개요 및 사회

천장리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에 있으며, 칠갑산 입구에 있는 농촌마을이다. 현재(=2차 조사 기간) 천장리에는 39가구가 살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직전 2003년 천장리의 가구 수는 37호이다. 마을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 천장리의 가구 수는 50호, 인구는 약 317명이었다¹³⁾. 가구당 가족 수는 약 6~7명이었다. 1970년대에 비하여 가구와 인구는 많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최근 10년간 전입한 가구를 보면, 귀촌이 세 가구, 귀농이 두 가구이다. 귀촌 세 가구는 천장리 출신이고, 귀농 두 가구는 천장리 출신이 아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4년, 2005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1가구, 2012년에 1가구가 전입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2가구가 증가했다. 한편, 앞으로 천장리로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향우인이 3명 있다. 그 중 한 명(=향우인①)은 알프스마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천장리에는 마을 안의 기존조직으로 대동회(39가구), 부녀자회(19명), 노인회(7명), 청년회(7명), 향우회(28명)가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으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영농조합법인)¹⁴⁾가 있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공간을 관리하고, 이것을 활용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1단계사업 완료 후 만들어졌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출자한 조합원(=출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는 가구당 1인이 대표로 출자하였고, 현재 39가구가 출자회원이다. 또한, 향우인 4명과 자매결연회사 2곳에서 출자하였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 운영이사, 인사위원회, 사무장, 총무, 홍보·마케팅팀, 마을축제팀, 농산물판매팀, 도농교류센터관리운영팀으로 구성된다.

행정리로서 천장리와 알프스마을은 별개의 조직이다. 행정리로서 천장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다. 마을 이장은 대동회의 수장이고 마을의 행사(대동회, 장승제, 산신제 등) 및 경조사를 맡아서 시행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소식을 마을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마을 외부에 대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대표는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이고, 알프스마을 리더로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2. 천장리의 마을공간 및 특징

천장리(행정리)에는 마을 이름과 관련된 지명이 일곱 개가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당골·눗점·아랫마을·중뚝·큰중뚝·웃마을’로 불러 오고 있다. 당골과 눗점을 합쳐서 ‘눗점이’라고 하고, 아랫마을·중뚝·큰중뚝·웃마을을 합쳐서 ‘천장이’라고 한다. 눗점이와 천장은 자연마을이고 이 두 곳을 합쳐서 천장리라고 한다. 거주공간은 북쪽 산 부근 양지바른 곳에 있다.

거주 공간의 앞쪽(남쪽), 뒤쪽(북쪽)으로 산이 감싸고 있고 그곳에는 여러 골짜기가 있다. 북쪽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회통골·샘골(삼골)·가골·터골·사기장골·염불골·신방골·단지점골·회골·참나무골·절터골·산제단골이 있다. 남쪽에는 신골(성인골)·불당골·도림골·토끼장골이 있다. 단지점골 입구에서 산제단까지 골짜기를 바른골이라고 하고, 바른골 정상에는 칠갑산 정상(561M)이 있다. 산제단골의 입구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전통공간인 산제단이 있다. 산제단 위의 산제단골과 바른골 상류에서부터 수원이 발원하여 바른골을 따라 흐르고 있고, 절터골·도림골·단지점골의 개울이 이곳에 합류하여, 거주공간 앞 남쪽산 밑으로 흘러내려 간다. 개울은 계속하여 장승제를 지내는 전통공간(소나무)이 있는 마을 입구를 거쳐서 인화달천과 합류한다.

사진 출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2 천장리 마을 전경.

사진 출처: 다음지도,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1 천장리의 마을 공간.

이처럼 천장리는 전통문화에 관한 공간 요소인 산제단과 장승제의 장소를 개울이 연결하는 동·서쪽으로 긴 선형적인 공간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를 기본으로 그 주변에 형성된 산 능선이 거주공간을 남북으로 감싸며 마을 입구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남쪽 산 밑 개울 부근은 음지가 형성되어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눈이 잘 녹지 않는다.

III.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단계

1.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단계

현지조사로 알프스마을의 도농교류 활동개발 전개과정을 3단계로 이해할 수 있었다.

도농교류활동 개발 제1단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1단계사업¹⁵⁾ 완료까지의 기간이다. 도농교류 기반시설로 웰빙체험공원, 도농교류센터, 축구장이 조성된 기간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마을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천장리는 농경지 면적이 작아서¹⁶⁾, 농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점을 고려하여 도농교류를 시행하여 농외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마을개발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그리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1단계사업에서는 도농교류 기반시설로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농원(이하, 체험농원), 가재체험장이 계획되었다. 2단계사업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을휴게소, 산책로, 꽃길, 주차장이 계획되었다(Figure 3).

한편, 1단계사업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 사업완료 후 시설물 관리와 사업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가재체험장을 삭제했고, 그 예산을 도농교류센터에 집중하여 투자했다(=제1차 기본계획변경, 2006). 1단계사업이 시행되고 2단계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업을 변경했다(=제2차 기본계획변경, 2009). 제2차 기본계획변경으로 축구장(인조 잔디)을 추가했다. 도시민을 마을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농촌지역에 없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농촌지역에 정식규모의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축구장을 건설했다. 동회와 같은 단체방문자가 도농교류센터에서 숙박할 때 단체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변경 과정을 거쳐서 천장리에는 도농교류를 위한 기반시설로 도시농촌교류센터(숙박시설, 세미나실, 식당), 축구장, 웰빙체험농원이 만들어졌다.

도농교류활동 개발 제2단계는 도농교류기반 조성 후

체험농원과 개울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활동개발을 시작한 2008년에서 활동개발 제3단계 직전인 2012년 말까지이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은 상향식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활동을 찾는 것, 일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 리더의 생각을 바탕으로 알프스마을은 도농교류활동을 찾아서 개발하기 시작했다. 개울을 활용하여 얼음축제를 개발·발전시켰다. 또한, 체험농원에 조롱박 터널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여 조롱박 축제를 개발·발전시켰다.

도농교류활동 개발 제3단계는 조롱박을 이용하여 6차 산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간이다. 현재 알프스마을은 축제를 활용한 도농교류 사업만으로는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롱박을 이용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경관), 조롱박축제를 이용하여 농촌체험과 문화를 활성화하고(체험·문화), 조롱박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로 조롱박화장품 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연계한 6차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청양군, 2013).

사진 출처: 다음지도,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마련된 시설·공간.

IV.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1.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특징

조사 분석 결과, ①2009년 개울개발을 시작으로 →

사진 출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4 알프스마을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개념도.

Table 2 알프스마을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실태와 특징

활동	연도	구분	활동 개발 실태	특징1		특징2
				문제점	문제점 개선	활동 및 주체 연계·융합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1 : 개울개발 → 얼음축제 개발·발전						
개울 활용	08	(1)	·계단식 정비	-	-	
	09	(2)	·평상 추가	-	-	
얼음 축제	1회 09	(3)	·개울뒷산 이용 얼음분수, 전통썰매 체험, 팽이치기 체험, 모닥불 군밤 굽기 체험 개발	①개울뒷산이용얼음분수 →얼음분수 유지 관리 비효율, 자연훼손	①제2회에서 유지 관리 효율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얼음분수 개발	-
	2회 10	(4)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얼음 분수 30점, 눈 조각, 얼음 조각, 소 썰매, 수영장 빙어 낚시 등 개발	①수영장 이용 빙어낚시 →빙어 폐사·관리 문제 발생	①수영장 빙어낚시 문제를 개선하여 제5회에서 개울 이용 빙어낚시 개발	-
	3회 11	(5)	·얼음분수50점, 얼음복슬레이, 전통썰매, 이앙기썰매, 눈나라동산체험 개발	①구제역 발생 →소 썰매 불가	①이앙기 썰매 개발	-
	4회 12	(6)	·조롱박축제 시설을 얼음 축제 시설로 활용	-	-	·조롱박축제 시설을 얼음 축제 시설로 활용 ·얼음축제에서 조롱박 축제 홍보
	5회 13	(7)	·수영장 빙어낚시 문제를 개선하여 개울이용 빙어 낚시 개발, 맨손 빙어잡기 체험 개발 ·얼음분수 추가 및 배치 변경, 얼음분수 규모 크게 변경, 얼음·눈 조각 캐릭터 변경	-	-	-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2 : 웰빙체험공원 → 조롱박축제 개발·발전 →조롱박이용 6차 산업						
체험 농원	08	(1)	①조롱박터널개발 ②농작물재배	-	-	①조롱박터널 →조롱박축제활용 ②농작물재배 →얼음축제판매
개울 활용	09	(2)	·개울길 조롱박 식재	-	-	·하천과 조롱박의 융합
조롱박 축제	1회 11	(3)	·조롱박110종 식재, 조롱박 터널, 만지는 박, 이미지마킹 박, 자연공예 체험, 허수아비 체험 개발	·8월에 맞추어 성장하는 조롱박 발견	·제2회에서는 8월에 맞추어 성숙하는 조롱박 식재	·조롱박 이용 음식개발 가능성 발견→조롱박 이용 음식개발→천장호 휴게소에서 판매
	2회 12	(4)	·조롱박65종, 우주형상 조롱박터널, 박에 소원쓰기 등 조롱박 이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	-	-
조롱박 화장품 개발	12	(5)	·조롱박을 이용한 6차 산업 추진, ①(구)천장초등학교 구입, ②조롱박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샘플 개발 완료	①(구)천장초등학교 구입 자금 확보 문제 ②원재료(박속) 안정적 공급문제	①천장리 황씨 종친회와 연계 ②지역주민 연계형 생산자 조직 구성 계획	·조롱박을 이용한 경관·체험·미용 테마의 연계·융합
그 외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숙박 시설	13	(i)	·귀촌 예정 향우인①의 집 신축 설계에 알프스마을 방문자 숙박가능 원룸 설계 추진 협의 중	·도농교류센터 숙박시설 작은방부족, 가족 단위 숙박자 대응 부족 등	·귀촌 예정 향우인①의 집 신축 설계에 알프스마을 방문자 숙박가능 원룸 설계 추진 협의 중	·향우인①과 연계

주1)연도는 활동개발 시작 연도 임.

얼음축제 개발·발전로 이어지는 활동개발 전개과정, ② 체험공원 조성 후 2009년 조롱박터널 설치를 시작으로 → 개울 길 조롱박 식재 → 조롱박축제 개발·발전 → 조롱박을 이용한 화장품개발 → 조롱박을 이용한 6차 산업 개발로 이어지는 활동개발 전개과정이 파악되었다. 이 외에 도농교류센터에서도 활동개발의 변화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도농교류활동 개발에 따라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활동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활동과 활동의 세부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개발해온 것이다. 둘째, 이전의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연계·융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현재 도농교류활동 개발 제3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개발 과정과 특징을 개념화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고 그 실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의 특징에 관한 실태

가.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1의 경우 : 개울개발 → 얼음축제 개발·발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1단계사업으로 도농교류기반 시설이 조성된 후 2008년, 남쪽 산 밑(개울 뒷산)에 흐르고 있는 개울 주변은 여름에는 서늘하여 피서를 즐기기에 적합하기에 이것을 마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개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개울을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마을에 방문한 도시민에게 피서 공간을 제공했다(Figure 5-사진1). 2009년에는 개울 위에서 휴식할 수 있는 평상을 설치하여 더욱 편리한 공간을 제공했다. 2010년에는 개울 옆 길에 조롱박을 심어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다.

다음, 개울 주변에는 눈과 얼음이 잘 녹지 않는 점을 마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얼음축제를 개발했다. 2009년 제1회 얼음축제에서는 개울과 개울 뒷산을 이용하여 얼음 분수(Figure 5-사진2)를 만들었고, 전통설매체험, 팽이치기체험, 모닥불군밤굽기체험을 시행했다. 산을 이용한 얼음 분수에서는 얼음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지속

사진 출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5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1 관련 사진.

해서 공급해야 하기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얼음분수로 인하여 산의 나무가 죽는 자연훼손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0년 제2회 얼음축제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얼음분수(Figure 5-사진3)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2010년 제2회 얼음축제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눈 조각, 얼음 조각, 소 썰매(Figure 5-사진4), 수영장¹⁷⁾ 빙어낚시(Figure 5-사진5)를 추가했다. 수영장을 이용하여 빙어 낚시를 시행한 결과 빙어가 폐사하는 빙어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2012년 제5회 얼음축제에서는 하천을 이용한 하천 빙어낚시와 맨손으로 빙어를 잡는 맨손빙어잡기체험을 개발했다.

2011년 제3회 얼음축제(Figure 5-사진10)에서는 구제역의 발생으로 1주일만 시행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소 썰매를 운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앙기가 끄는 이앙기 썰매를(Figure 5-사진6) 개발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봅슬레이(Figure 5-사진7)를 추가했고 얼음 분수의 개수를 50개로 늘렸다.

2012년 제4회 얼음축제에서는 2011년 제1회 조롱박축제에서 개발한 조롱박터널(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얼음봅슬레이(Figure 5-사진8)와 전통썰매 체험 장소로 사용했다. 조롱박축제에서 겨울축제인 얼음축제를 홍보하였고, 얼음축제에서 여름축제인 조롱박축제를 홍보하고 있다(Figure 5-사진9).

2013년 제5회 얼음축제에서는 개울 빙어낚시, 맨손빙어잡기체험을 개발했다. 또한, 얼음 분수의 크기를 더 크

게 만들었고, 얼음 분수의 배치를 변경했다(Figure 5-사진11). 얼음 조각과 눈 조각은 매년 어린이와 방문자 가족들에게 인기가 있는 캐릭터(Figure5-사진12)를 선정하여 전년도와 다르게 만들었다.

이처럼 활동개발 전개과정 1에서는 활동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여 개발해 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활동개발 전개과정 1에서는 조롱박축제와 얼음축제를 연계하는 연계활용 실태도 확인되었다.

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2의 경우 : 웰빙체험공원 → 조롱박축제 개발·발전 →조롱박이용 6차 산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사업으로 도농교류기반시설이 조성된 후 2008년, 체험공원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조롱박을 재배하여 조롱박 터널을 만들었다(Figure 6-사진1). 이것을 이용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시행한 후 조롱박을 개울 옆 길에 심어서 여름철 마을 방문자에게 쾌적한 피서 공간을 제공했다(Figure 6-사진2). 2011년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조롱박 터널을 마을 공간에 설치하여 여름 축제인 제1회 조롱박축제를 개발했다(Figure 6-사진3). 2011년 제1회 조롱박축제에서는 조롱박 110종을 사용하여 조롱박터널, 조롱박을 만지는 체험, 조롱박에 글자를 새기는 이미지마킹박체험(Figure 6-사진4), 자연공예체험, 허수아비체험 등을 개발했다. 제1회 조롱박축제에서는 조롱박을 이용한 음식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요리전문가와 협력하여 조롱박을 이용한

<p>사진1-체험농원 조롱박터널</p>	<p>사진2-개울 조롱박 식재</p>	<p>사진3-조롱박 터널</p>	<p>사진4-이미지마킹 박 (제1회 조롱박 축제)</p>
<p>사진5-조롱박 음식 개발 (제2회 조롱박 축제)</p>	<p>사진6-조롱박 음식 판매 특산물판매장</p>	<p>사진7-조롱박이용 마을 경관</p>	<p>사진8-(구)천장초등학교 사진 출처: 필자촬영</p>

사진 출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6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2 관련 사진

음식을 개발했고(Figure 6-사진5), 이것을 천장호휴게소의 특산물판매장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Figure 6-사진6).

2012년 제2회 조롱박축제에서는 조롱박을 65종 사용하여 조롱박 터널을 설치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주형상 조롱박터널을 설치했고, 박에 소원을 쓰는 조롱박 대박 체험을 시행했다. 전년도보다 사용한 조롱박의 품종이 65개로 줄어든 이유는 모든 조롱박이 축제 기간에 맞추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고려하여 조롱박축제 시행 기간인 8월에 잘 성장하는 조롱박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축제를 활용한 도농교류 사업만으로는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조롱박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로 조롱박화장품 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롱박축제를 활용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경관)(Figure 6-사진7), 조롱박을 이용한 농촌체험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체험·문화). 조롱박을 이용한 경관, 체험·문화, 미용을 연계·융합하여 조롱박을 이용한 6차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활동의 거점 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에 (구)천장초등학교를 청양군으로부터 구매했다. 당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재정력으로는 (구)천장초등학교를 구매할 능력이 미흡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장리의 황씨 종친회와 연계하여, 황씨종친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구)천장초등학교를 구입했다(Figure 6-사진8). 2012년에는 화장품 연구 기관과 화장품 생산회사와 협력하여 기능성 화장품 샘플을 개발했다. 한편, 화장품 원재료(조

롱박 속)의 안정적 공급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계형 생산자조직을 구성하려고 있다. 지역주민이 조롱박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롱박 모종을 알프스마을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개발 전개과정 2에서는 조롱박음식 개발과 특산물판매장 판매로의 연계, 조롱박축제 발전과 화장품개발을 연계·융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리전문가, 천장리 황씨종친회, 화장품 관련 연구·생산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즉, 활동개발 전개과정 2에서는 활동 간의 연계·융합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와 마을 내 외부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1과 2 이외의 경우

2012년에는 알프스마을에 28만 명이 방문하였고, 그 중 5천 명이 도농교류센터(Figure 7-사진1)의 숙박시설에서 숙박했다. 현재 도농교류센터의 1층은 식당, 주방, 세미나실, 화장실이 있다. 2층은 숙박시설, 샤워실, 화장실이 있다. 방은 큰방(18평) 1실, 큰방(13평) 1실, 작은방(5평) 5실이 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동호회나 회사 등 단체 숙박의 경우 방이 부족할 때가 있다. 학교와 같은 단체숙박의 경우 선생님을 위한 작은 방을, 가족단위 숙박의 경우 개별 샤워실을 원하는 손님도 있다. 이 처럼 숙박시설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귀촌예정인 향우인 ①이 천장리에 집을 신축하려 하고 있다(Figure 7-사진2).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집의 설계에 방문자가 숙박 가능한 원룸을 추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Figure 7-사진3). 이처럼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향우인① 즉 외부 주체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진1-도농교류센터
사진 출처: 필자촬영

사진2-향우인①집 신축 대지 조성
사진 출처: 필자촬영

사진3-향우인①집 신축 계획 검토(안)
사진 출처: 필자촬영

사진 출처: 필자촬영,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7 활동개발 전개과정 1과 2 이외의 경우 관련 사진

V. 도농교류활동 개발에 따른 수익 창출 실태

1. 연도별 총매출 창출 실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연도별 총매출 현황을 활동 분야별로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것을 분석하여 연도별 총매출 추이를 Figure 8에 나타내었고, 활동분야별 총매출 점유율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제3회 얼음축제를 1주일간만 시행하여서 2011년의 데이터는 다른 연도와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상 2011년도의 추이는 설명에서 제외한다.

2010년도 총매출 증가율은 식당이 231%, 숙박이 207%, 체험(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등)이 386%, 농산물 판매가 203%로 많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체험 분야의 총매출이 38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09년 알프스마을에 방문한 전체 방문자 수는 5만 5천 명이다(Table 4).

Table 3 연도별 총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안의 숫자는 총매출 점유율 퍼센트

연도 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식당	38(31)	127(29)	167(34)	218(21)	551(27)
[전년도비증가율]		[231]	[31]	[31]	-
숙박	36(29)	111(26)	101(21)	157(16)	406(20)
[전년도비증가율]		[207]	[-8]	[54]	-
체험	22(18)	110(26)	151(31)	445(44)	730(35)
[전년도비증가율]		[386]	[36]	[195]	-
농산물 판매	27(22)	82(19)	68(14)	196(19)	374(18)
[전년도비증가율]		[203]	[-17]	[186]	-
합계	124(100)	432(100)	488(100)	1,017(100)	2,061(100)
[전년도비증가율]		[246]	[13]	[108]	-

출처: 희망마을 만들기(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보고서(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자료로 필자 작성

Table 4 연도별 도농교류 방문자 수

연도 방문객(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체험활동	1천5백	4천	9천	8천	1만	-
숙박	5백	3천	4천	4천	5천	-
얼음축제	-	1만	10만	3만	12만	18만
조롱박축제	-	-	-	1만	1만2천	-
단순방문객	3만	4만	10만	5만	13만5천	-
합계	3만2천	5만5천	21만1천	10만	28만2천	-

출처: 희망마을 만들기(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보고서(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자료 및 알프스마을운영위원장 면접조사 결과로 필자 작성

2009년 제1회 얼음축제의 방문자는 1만 명인 데 비하여, 2010년 제2회 얼음축제 방문자는 10만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Table 4). 얼음축제 방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분야의 총매출도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다. 2012년도 총매출 증가율은 식당이 31%, 숙박이 54%, 체험이 195%, 농산물 판매가 186%로 증가했다. 2010년도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계속하여 증가했다. 이 중 체험과 농산물 판매 분야가 많이 증가했다. 2011년에는 제1회 조롱박축제가 개발되었고, 방문자는 1만 명이였다. 2012년 제2회 조롱박축제 방문자 수는 1만 2천 명이였다. 한편, 2012년 4월에 청양군으로부터 천장호 휴게소의 특산물판매장(식당)을 2년간 임대하여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도의 총매출액은 9천7백만 원이고, 그중 농산물판매 총매출액은 1천5백만 원이다(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

출처: Table 3데이터로 필자 분석 작성

Figure 8 연도별 총매출 추이.

보고서(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이러한 요인으로 체험과 농산물 판매 분야의 총매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분야별로 총매출은 계속하여 성장했고, 특히 체험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위의 분석 결과로 알프스마을은 얼음축제와 조롱박축제의 방문자수를 확대하여 분야별 총매출이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2012년도에는 체험분야의 총매출 점유율이 총매출의 44%로 가장 많이 접하는 매출 창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9).

출처: Table 3 데이터로 필자 분석 작성

Figure 9 활동 분야별 총매출 점유율.

2.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특징과 도농교류 방문자 확보의 유효성

알프스마을에 방문한 도농교류 방문객은 Table 4처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도농교류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를 계속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방문자를 계속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첫째,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홍보마케팅팀(13명)에는 향우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울개발과 제1회 얼음축제를 시행할 당시(=주민에 의한 활동개발 초창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도시에 사는 향우인, 동창, 그들이 소속된 회사와 단체를 통하여 홍보했다. 제2회 얼음축제에서부터는 TV광고, TV보도, 신문보도, 시사 잡지를 통하여 도농교류활동을 홍보했다. 5회에 걸쳐 얼음축제를 시행한 결과 2012년 말에는 겨울축제 검색 순위(네이버)에서 3위에서 10위를 차지하여 전국적인 겨울 축제로의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홍보방식은 다른 지

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알프스마을의 홍보방식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1년에 제1회 조롱박축제를 개발했다. 조롱박축제에서 겨울축제인 얼음축제를 홍보하고 있고, 얼음축제에서 여름축제인 조롱박축제를 홍보하고 있다(Figure 5-사진9). 알프스마을은 두 축제를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알프스마을 도농교류활동 전개 개발과정 특징2, 즉, 이전의 활동과 새로운 활동의 연계하는 특징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둘째,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계속해서 방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하고, 그러므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의 특징1, 즉, 활동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활동과 세부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개발해 왔다. 즉,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농교류 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3.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특징과 수익 창출의 유효성

도농교류활동에 따른 총매출과 수익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얼음축제를 보면, 제1회 얼음축제에서는 총매출 1억 원을 올렸지만, 수익에서 2천8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제2회 얼음축제에서의 총매출은 1억 6천만 원, 수익은 5천8백만 원이었다. 제3회 얼음축제에서는 1주일 간만 실행하였고, 총매출은 1억 4천만 원, 수익은 2천8백만 원이었다. 제4회 얼음축제에서의 총매출은 5억 원, 수익은 2억 원이었다. 제5회 얼음축제에서의 총매출은 9억 원, 수익은 3억 원이었다. 한편, 조롱박축제를 보면, 제1회 조롱박축제에서의 총매출은 8천만 원, 수익은 2천만 원이었다. 제2회 조롱박축제에서의 총매출은 9천만 원, 수익은 3천만 원이었다. 도농교류센터의 식당과 숙박시설의 총매출은 2009년도에 약 5천만 원, 2012년도에 약 4억 5천만 원이었다. 체험농원의 총매출은 2009년에는 거의 없었고, 제1회 얼음축제 후인 2010년부터 연간 약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울활용에서는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연간 약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축구장에서는 연간 약 4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연간 매출과 수익에는 얼음축제가 큰 비중을 창출하고 있다.

얼음축제의 세부프로그램 개발 전개 내용을 보면, 제3회에서 구체적으로 소 썰매 운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앙기 썰매를 개발했다.

Table 5 도농교류활동별 총매출 및 수익 창출 실태

연도\매출(수익) (만원)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도농교류센터 (숙박+식당)	체험농원	개울활용	축구장
2009	제1회	1억원 (-2천8백)	-	-	약5천	-	연간 약1천	연간 약4백
2010	제2회	1억6천 (+5천8백)	-	-	-	연간 약3천		
2011	제3회	1억4천 (+2천8백)	제1회	8천 (+2천)	-			
2012	제4회	5억 (+2억)	제2회	9천 (+3천)	약 4억 5천			
2013	제5회	9억 (+3억)	-	-	-			

출처: 희망마을 만들기(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보고서(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자료 및 알프스마을 운영위원장 면접조사 결과로 필자 작성

Table 6 도농교류활동에 따른 가구당 농외수익 창출 실태

연도	수익	가구당 연간 농업 수익(만원)	농외수익(평균) (만원)
2007년 이전		300~800	-
2008년~2011년		300~800	500~1,500
2012년		300~800	800~1,500

출처: 희망마을 만들기(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자료로 필자 작성

소 썰매는 1대를 운영하였고, 이양기 썰매는 2대를 운영했다. 얼음축제에서 소 썰매 매출과 이양기 썰매(2대)의 매출은 약 2천만 원으로 비슷하다. 수영장빙어 낚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울빙어낚시, 맨손빙어잡기 체험을 개발했다. 이처럼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여 개발해 온 것이 얼음축제 수익 창출의 한 요인이라 할 수가 있다.

한편, 숙박시설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향우인①과 협력하여 신축예정인 집의 설계에 가족단위 숙박자가 머물 수 있는 원룸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알프스마을은 방문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우인①도 방을 빌려주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조롱박 화장품개발에서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계형 생산자조직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알프스마을은 원료를 계속해서 확보하여 화장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수익이 발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의 주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알프스마을 뿐만 아니라 연계 주체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을 통하여 알프스마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500~1,500만 원의 농외수익이 창출되었다. 2012년에는 800~1,500만 원으로 농외수익이 증가했다(Table 6). 따라서 알프스마을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 특징은 수익 창출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VI. 결 론

1.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마을 주민의 수익 창출에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된 알프스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익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스스로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밝혔다. 또한, 그 특징이 수익 창출에 유효하였는지를 확인했다.

이상의 조사 분석 결과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도농교류활동을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활동을 계속 개발했다. 특히, 기존의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연계·융합하며,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활동을 개발했다.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여 개발한 것은 도농교류 방문자

확보에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방문자의 증가로 식당, 숙박, 체험, 농산물 판매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체험분야(얼음축제, 조물박축제 등)의 총매출 점유율이 전체매출의 44%로 가장 많이 접하는 매출 창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을 통하여 가구당 농외수익은 2012년 현재 800~1,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그 특징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유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스스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외부 주체와 연계·협력했다.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의 주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알프스마을 뿐만 아니라 연계주체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2. 다음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중, 추진방향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연구과제로 추진방향③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알프스마을의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에서 마을 내·외부 주체와의 연계¹⁸⁾는 어떠하였는지(=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와 내·외부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체계의 구축), 연계 과정에서 주민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연계를 통하여 어떤 부분에서 주민의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와 마을 내·외부 주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동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능력 향상의 방향성(지원 방안, 정책 제안 등)에 관하여 고찰을 하고자 한다.

주1) 본 연구에서 ‘수익’은 ‘총매출액-총매출원가(재료비+경비)-노무비’를 나타낸다.

주2)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한국전쟁 후 1950년대에는 식량증산(농업증산계획), 1960년대에는 토지개량,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기초생활환경개선(새마을운동, 마을구조개선사업 등), 1980년대에는 종합개발방식의 시도(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1990년대에는 소규모개발사업의 실시(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2000년도 초기에는 마을단위개발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등 시대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참고문헌 박시현, 박주영(2003) p.3-29를 참고로 필자 작성). 한편, 2003년에 시작된 노무현 정부는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이 지속해서 쇠퇴하여가고

있는 것을 국가의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참고 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p.22-24를 참고로 필자작성).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2004)’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질향상법)(2004)’을 제정했다. 이전의 시기 즉 2000년대 초까지의 농촌지역개발사업(기존농촌개발사업)에서는 생활환경시설개선 등의 물리적 시설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시행되어왔다. 또한, 행정주도의 하향식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과 주민참여를 통한 개발이 미흡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했지만,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미흡했다.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농촌개발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권한, 주민참여, 소프트웨어(주민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등)를 중시한, 기존농촌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주3) 박시현과 박주영(2004)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마을개발사업의 2004년에 처음 착수한 권역, 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초창기에서 주민 이해 조정자의 역할 미흡, 지역자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불충분에 따른 사업 성공 가능성 불투명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주4) 정환영 등(2008)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도자 및 추진 리더 간 갈등 발생’, ‘시설물 배치, 사업비 분배에 따른 마을주민 간 갈등 발생’, ‘지역자원, 마을 비전 설정과 발전방향과의 연계, 수익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불충분’,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컨설팅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필자는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金斗煥, 山崎寿一, 201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4개 권역을 방문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사무장에게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5) 센가(千賀, 2002)는 ‘농촌계획학’을 ‘지역실천과학’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계획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가, 주민 사이의 합의 형성, 실천 성과의 질, 실천 후의 이용·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계획을 실천한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센가의 이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을 넘어서 계획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센가의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필자는 농촌(지역)계획학을 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목표를 실현하는 ‘지역실천·실현과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을 실천하여 목표를 실현한 성공사례지역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6) 천장리는 ‘얼음축제’를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얼음축제와 관련하여 천장리의 마을 명칭을 ‘알프스마을’로 칭하고 있다.

주7) 연구 대상지역인 알프스마을은 도농교류를 통한 농외수익 창출을 도모해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활동은 도농교류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도농교류활동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패적인 환경·고유한 역사문화·농업을 통한 체험활동, 농특산물과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을 활용한 활동 등을 말한다(참고문헌 박시현(2003)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주8) 칠갑산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은 ‘칠갑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농어촌공사 청양군, 2005)’, ‘칠갑산권역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자료(청양군, 2007)’, ‘칠갑산권역 증빙자료(청양군, 2009)’를 참고했다.

주9) 알프스마을은 2012년 농촌계획학회 한·일 심포지엄의 견학지이고, 한·일 심포지엄의 견학 기간(2012.11.24.)은 1차 현장조사 기간에 포함된다.

주10) 천장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운영 지침으

로 완료 후 시설물을 관리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현재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에는 각 가구의 대표 1인이 출자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의 운영 조직(주체)은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리로서의 천장리와 알프스마을을 혼돈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진행에 관하여 천장리를 부를 때는 알프스마을이라고 표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기술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후 알프스마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으로 기술한다.

- 주11) 칠갑산권역은 서정1리, 용두리, 역촌1리, 천장리, 마치2리로 구성된다.
- 주12)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 주13) 1970년대의 가구 수, 인구는 청양군 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없었으므로 1970년대의 가구 수, 인구는 주민(옛 이장)인터뷰 조사로 파악했다.
- 주14) 2004년 4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칠갑산권역이 형성되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다음으로 2005년 11월에서 2006년 4월까지 세부계획이 확정된다. 그 후 1단계사업이 시행되고, 2007년 12월에 1단계사업이 완료된다.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규정에 따라,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농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천장리마을운영위원회(영농조합법인)’를 결성한다. 그러나 천장리마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직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관리·운영의 주체였다. 그 후 천장리마을운영위원회 창립발기에 관한 총회(2008.07), 추석에는 향우인과의 회의(2008.09), 창립총회(2009.01)를 걸쳐, 천장리마을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영농조합법인)’로 변경을 하여 비로소 마을 주민에 의한 관리 운영체제가 마련되게 된다.
- 주1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이다. 1단계 사업은 3년, 2단계 사업은 2년으로 구성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주16) 2003년 천장리의 경지 면적은 답이 15ha, 전이 10ha이다(농어촌공사·청양군(2005), p.20).
- 주17) 수영장은 청양군 농어촌기술훈련센터의 지원금과 알프스마을의 자부담금으로 마련했다.
- 주18)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이 혼자서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필자는 마을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개발·운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외부 주체(향우인, 주변마을,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등)와 연계를 하여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마을 지명과 마을 역사를 가르쳐주신 황인세 운영이사님, 각 팀의 팀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천장리 마을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글을 포함합니다.

참고문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 농어촌공사·청양군, 2005, 칠갑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
3. 박시현, 2003,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연구 통권263호, 18-30.
4. 박시현, 박주영, 200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박시현, 박주영,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희망마을 만들기.
7.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2013, 2013년도 정기총회 결산보고서.
8.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청양군, 2013, 알프스 조롱박 6차 산업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9. 양원식, 최수명, 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동소득사업 성과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9(1), 55-70.
10. 정환영, 조영재, 김형수, 황재혁, 임연엽,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1. 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구례 방광권역 주민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5(4), 109-124.
12. 청양군, 2007, 칠갑산권역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자료.
13. 청양군, 2009, 칠갑산권역 증빙자료.
14. 金斗煥, 山崎寿一, 2012, 韓国・農村マウル総合開発事業における計画圏域の設定とコミュニティ再編の課題,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会(東海).
15. 千賀裕太郎, 2002, 地域実践科学としての農村計画の問題, 日本農村計画学会誌, Vol.21(2), 117-12.

접 수 일: (2013년 5월 5일)

수 정 일: (1차: 2013년 5월 22일, 2차: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 3인 익명 심사필